

만경강 거닐며 천년고찰 심표… 봉동생강차 한잔에 피로삭

로컬 여행

전라북도 완주군

서울에서 KTX로 두 시간 거리
자전거 투어 등 즐길거리 풍성
봉동생강, 독특한 맛·향 자랑

KTX로 서울에서 불과 두 시간 거리에 있는 전라북도 완주의 여행길은 마치 시골길을 걸으며 듣는 바람 소리처럼 잔잔한 여운을 주는 여행이다.

이번 여정에서는 삼례문화예술촌, Wanta 자전거 투어, 그리고 송광사를 향한 여행을 계획하며, 완주의 자연과 문화를 담아 보았다.

◆역사가 깃든 문화와 예술의 마을 ‘삼례문화예술촌’

삼례문화예술촌은 과거의 아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음과 동시에, 현재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현재와 과거가 공존하는 특별한 공간으로 거듭난 곳이다.

일제강점기 시절, 수탈의 상징으로 사용되었던 거대한 곡물창고들이 현재는 전시장으로 재탄생했다. 특히, 과거 미곡창고였던 건물을 개조하여 만들었다



삼례문화예술촌.

는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이 공간이 담고 있는 무거운 역사의 흔적과 반대로 사람들로 가득 찬 활기를 동시에 느낄 수 있다.

◆바람을 타고 느끼는 완주 자전거 투어
삼례를 뒤로하고, 완주의 풍성한 자연을 느끼기 위해 ‘Wanta 자전거 투어’를 시작했다.

비비정은 완산팔경 중 하나로, 그 이름은 “기러기가 쉬어가는 곳”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실제로 계절이 바뀌는 시기가 되면 철새들이 무리를 지어 날아오르고, 그들이 강 기슭에 앉아 쉬는 모습이 장관을 이룬다고 한다. 비비정에서 바라본 풍경은 만경강의 수려한 물줄기와 자연이 어우러져 자전거 여행의 강한



만경강 풍경.

인상을 남긴다.

◆역사 속 고요한 명상의 공간 ‘송광사’

완주 여행의 마지막 여정은 깊은 역사와 공존하는 송광사(松廣寺)다. 종남산 기슭에 자리한 송광사는 신라 경문왕(867년)때 창건된 고찰로, 임진왜란때 전소되었다가 수차례 재건되면서 오늘날에 이르는 천년 고찰이다.

송광사의 중심부에 위치한 대웅전은 흙으로 빚어 만든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보물 제1274호)’을 모시고 있어 그 크기와 화려함에 눈길이 멈춘다.

조선 후기의 건축미를 보여주는 독특한 십(十)자형 구조가 돋보이는 종루는 송광사의 또 다른 자랑거리 가운데 하나다. 지금은 보수 공사중이다.



송광사 풍경.

◆천년의 전통을 담은 금보다 귀한 ‘봉동생강’

완주를 여행하며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바로 ‘봉동생강’이다. 봉동은 600년 이상의 생강 재배 역사를 가진 천년 고장으로, 그 역사는 단순히 길지만 한 것이 아니라 농업의 위기를 극복해온 자연 친화적 전통 농업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봉동 생강은 일반 생강과는 다른 독특한 재배법과 저장 방식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생강의 가장 큰 천적인 ‘뿌리썩음병’에 대처하기 위해 봉동 농가들은 화학비료 대신 전통 생태 농법을 고수하며 자연과의 공존을 선택했다. 봉동 생강은 단단하면서도 부드럽고, 독특한 단맛과 깊은 향을 자랑한다.

◆로컬푸드의 매력

봉동 생강을 이용하여 완성된 다양한 음식과 음료로 여행 중 또 다른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삼례에 자리한 아담한 카페 ‘커피한잔’을 찾았다. 이 카페의 특색은 완주 봉동 생강을 사용해 만든 진짜 생강차다.

한 잔을 마시는 순간, 그 특유의 따뜻함과 고유의 진한 풍미, 그리고 은은한 단맛이 온몸을 감싸주며 하루의 피로를 녹여준다.

완주 미식 투어는 용산역에서 KTX로 출발해 익산역에서 연계 버스로 투어를 진행한다. 현재 ‘여행공방’과 완주군이 의기투합해 론칭을 준비 중이다.

/최규준 기자 ch9720@metroseoul.co.kr

안동시, ‘ABC산업’ 도시 혁신 박차

‘안동형 일자리사업’ 성과 이어져
백신 분야 등 ABC산업 고도화 집중

안동시가 지난 4년간 추진해 온 안동형 일자리사업이 지역 기업 성장과 청년 인재 양성에서 실질적 성과를 거두며 지역 산업 혁신 기반을 다지고 있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2026년을 농식품(A)·바이오(B)·문화관광(C) 산업을 핵심 축으로 하는 ‘ABC 산업 재도약의 해’로 선언하고 사업 전반의 고도화에 나선다.

안동형 일자리사업은 지자체, 대학, 기업, 연구기관이 협력해 기업지원, 창업지원, R&BD, 인재양성, 인턴십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나의 체계로 운영하는 지역 기반 일자리 창출 사업이다.

지난 4년간 ▲384개 기업과 30개 창업 기업 지원 ▲전문인력 927명 양성 ▲인턴십 참여자 204명(채용연계율 38%, 고용유지율 46%) 등 실질적 성과가 나타났다. 총 444명의 청년 일자리가 창출됐



으며, 지식재산권 88건, 12개 기업 유치 등 기술 성과도 의미있는 수준이다. 아울러 최근 성과조사에서는 참여기업의 64.8%가 매출 증가를, 79.1%가 고용유지 또는 확대를 경험했다고 응답해 사업이 기업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음을 보여줬다.

내년은 사업 강화기의 마지막 해로, 안동시는 ABC산업을 중심으로 한 구조 고도화에 집중한다. 특히 백신, 헬프, 친환경소재, 스마트팜 분야 기술개발 사업 강화와 차세대 mRNA 백신 생산기반 구축 등 신규 사업이 추진된다.

권기창 안동시장(사진)은 “2026년에는 ABC산업 중심의 고도화를 통해 기업이 지속 성장하고 청년이 지역에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환경을 확실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안동(경북)=김준한 기자 kih9@

경북도, 포항~울릉도 ‘썬라이즈호’ 투입

정원 442명, 약 3시간 40분 소요

경북도는 동절기 내륙과 울릉을 오가는 유일한 여객선인 뉴시다오펜호(1만 1515톤, 정원 1200명)가 12월 9일부터 2주간 정기 검사에 들어감에 따라 대체선으로 썬라이즈호를 투입한다고 밝혔다.

최근 경북도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울릉군과 함께 여객선사와 두 차례 대책 회의를 열고 “항로 단절만은 막겠다”는 공동 목표 아래 해결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여객선사들도 울릉도 주민의 일상

생활과 해상 이동권 보장을 위한 책임경영 필요성에 공감해 울릉루즈(와)와(와)대저페리가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해 썬라이즈호 투입을 결정했다.

대체선으로 운항하는 썬라이즈호는 정원 442명의 쌍동쾌속선으로, 포항에서 울릉까지 약 3시간 40분이 소요된다. 뉴시다오펜호보다 흔들림이 있어 승선감은 다소 불편하지만 운항 시간이 약 3시간 단축돼 주민들의 일상 업무와 생활에 여유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김준한 기자

경남도, ‘우주항공·방산 융합 콘퍼런스’ 개최

‘SERESSA’ 연계… 세계 석학들 참여

대한민국 우주항공 수도 경남에서 세계 석학들이 참여해 ‘K-방산과 미래 우주항공 기술’의 융합을 논의하는 대규모 국제 콘퍼런스가 열린다.

경상국립대학교는 경남도, 사천시와 공동으로 24일 오전 10시 경상국립대학교 가좌캠퍼스 GNU컨벤션센터에서 ‘제2회 우주항공·방산 국제 융합 콘퍼런스 2025’를 개최한다.

이번 콘퍼런스는 SERESSA 2025와 연계해 개최된다. 특히 올해는 K-방산 수출 확대와 누리호 4차 발사라는 의미가 더해져,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국내외 우주항공·방산 전문가, 학계 연구자, 산업계 실무자, 정책 담당자 등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경남(진주·사천)이 글로벌 우주항공·방산 클러스터의 허브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경북학교·학생, 국가기술자격 최다 수상

경북교육청 7개 학교, 12명 수상

경북교육청은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국가기술자격 취득 우수교·우수학생 선정에서 학교 분야 전국 35%, 학생 분야 전국 65%의 수상 비율을 기록하며 전국 최다 수상 실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은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것으로, 선정 규모는 17개 시도교육청별 고용노동부 장관상(학교 1교, 학생 1명)과 시도교육청 구분 없이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상(학교 1교, 학생 1명)이다.

학교 분야에서는 경북항공고등학교(영주)가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

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상은 경북 바이오마이스터고등학교(영천), 금오공업고등학교(구미), 문경공업고등학교, 삼성생활예술고등학교(경주),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 한국국제조리고등학교(영주) 등 총 7개 학교가 수상했다.

학생 분야에서는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 학생 1명이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받았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상은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 9명, 포항흥해공업고등학교 1명, 경북항공고등학교(영주) 1명 등 총 12명의 학생이 수상해 학교 분야(17개교 중 6개교), 학생 분야(17명 중 11명) 모두 전국 최다 수상의 성과를 기록했다.

/경북=김준한 기자

지역 이모저모

부산시, 美 아트 페스티벌

부산시는 24~25일 양일간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2025 부산 미(美)아트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는 미용인 간 기술·정보를 교류하고 부산의 우수 미용 인재를 발굴해 미용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헤어·피부·네일 미용 분야별 기능 경진대회 ▲시민참여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다.

/부산=이도식 기자

포항시

“골목상권, 함께 지켜요”

포항시는 오는 25일 ‘체인지업그라운드 포항’에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시민 공감 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의 힘과 연대’를 주제로 진행된다. 윤정현 영남대 경영학과 교수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골목상권·관광·디지털 전환·도시재생을 연계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청송군, 국제 역노화 포럼

청송군 24일부터 25일까지 양일간 소노벨 청송에서 경상북도와 대구가톨릭대학교 AI역노화연구원과 함께 ‘2025 청송 국제 역노화 포럼(International Reverse-Aging Summit 2025)’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청송군이 추진 중인 ‘K-U시티 역노화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독일, 홍콩 등 해외 전문가를 비롯해 국내 연구기관 및 관련 기업이 대거 참여한다. /청송(경북)=손기섭 기자 gbnnews8082@